

# 파운데이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김주덕, 주란, 이선영  
숙명여자대학교 원격향장산업대학원

## The Factors that Can be Affected by the Function of Foundations

Kim Ju-Duck, Ju Rhan, Lee Sun-Young.  
Graduate School of Cyber Cosmetics Industr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I. 서론

화장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시작하여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인간은 자연과 신 앞에서는 나약할 수 밖에 없는 고대 시대에 자연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을 위한 종교의식에서 화장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원초적인 욕구에서 시작되어 점차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미적 욕구에 의해 화장을 하였고, 특히 피부를 아름답고, 희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부를 아름답고, 희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백분(白粉)을 많이 이용하였다. 분의 역사는 기원전 2200 년경 중국 하(夏)나라시대부터 사용된 기록이 있으며 향료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백분의 최초 사용 기록은 삼국시대 초기에 백제 연인들이 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사용 연대는 삼국시대 초기보다 훨씬 앞설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대에 이미 백색피부를 호상(好尙)하여 흰 살갗으로 가꾸기 위한 갖가지 미용수단을 강구하였는데, 백색의 안면도포는 일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백색피부로 가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어서 백분의 사용이 일찍 대중화되었다. 분은 글자가 의미하는 바와같이 쌀(米)을 가루(分)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쌀로만 만들지 않고 활석, 백토, 황토, 조개껍질, 분꽃 씨앗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런 백분은 부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화장의 지속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분을 바르기 전에 안면의 솜털을 족집게로 뽑거나 혹은 실면도로써 솜털을 제거하고, 그 다음 분을 사용할만큼 접시에 덜어 적당량의 물을 부어 액체상태로 반죽하여 얼굴에 퍼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부착력이 약하여 대부분의 분이 날려 화장이 곱고 깨끗하게 마무리 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부착력을 개선하기 위해 백분에 납(鉛)을 넣어 사용하였는데 부착력은 개선하였으나 납중독에 의해 땀구멍이 커지고 얼굴색이 변하는 부작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930 년대에 사용이 금지가 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1950 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유화, 유성타입의 파운데이션을 개발하였고, 또한 1978 년에는 일본 고세에서 투웨이케익을 개발하였다.

파운데이션류는 수분이 많고 자연스럽고 커버력이 적은 리퀴드 타입과 오일 함량이 많고 커버력이 우수한 크림 파운데이션, 그리고 파우더 파운데이션과 수건양용(水乾兩用) 타입인 투웨이케익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파운데이션 중에는 투웨이케익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유화타입의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투웨이케익(Two-way cake) 용어는 퍼프를 젖은 상태와 마른 상태의 두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으로서 현재는 파운데이션과 다른 새로운 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다.

파운데이션에 요구되어지는 기능은 피부결점을 보정할 수 있는 적당한 커버력과 오랫동안 화장의 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속성, 피부톤을 자연스럽고 깨끗하게 표현하게 하는 마무리 감이 중요하며 여기에 퍼짐성과 밀착감 등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현재까지도 파운데이션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으로 파운데이션의 기능면에서도 과거에 비하여 지속성을 강조하고 또한 스킨케어 개념이 가미된 파운데이션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운데이션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파운데이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파운데이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기능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결과를 통하여 새로운 파운데이션 개발에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 II. 파운데이션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의미한다고 화장품의 정의에 나와있다. 이중에 파운데이션과 관계되는 것은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게 하는 등 미적 역할이 주목적이다. 이밖에 유해한 자외선과 외적 조건에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과 은폐에 따른 안심감과 화장하는 자체에서 마음의 편안함과 같은 심리적 역할도 있다. 이러한 3 가지 역할과 관련된 인자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 1. 피부 생리적 인자

### 1) 피부색

피부색은 인종, 성별, 연령, 지역, 계절, 개인차, 피부의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피부색은 멜라닌, 헤모글로빈, 카로틴의 3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더욱이 피부색에는 각질층의 두께나 수화(水和)상태, 혈액의 양이나 혈액중 산소의 양, 세포간의 접촉상태 등의 여러가지 요인과 관계가 있다.

백인의 피부는 548nm 와 578nm 근방에 옥시 헤모글로빈에 대응하는 흡수가 있으며 멜라닌이 적은 표피층의 투명도가 높아 혈액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핑크색으로 느껴진다. 역으로 흑인의 피부는 멜라닌이 많고 혈액의 헤모글로빈에 의한 흡수가 적다. 동양인은 백인에 비해 멜라닌 흡수가 강한 황색 피부를 갖고 있다.

파운데이션은 이런 피부색의 차이 때문에 다양한 색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목적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색을 보이기 위한 것과 또 피부색의 결점을 보정

하기 위해 사용한다.

파운데이션은 유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서 과거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당시에는 서양과 일본의 메이크업 경향에 영향을 받아 붉은 톤의 파운데이션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부색과 비슷한 베이지, 오클계열의 파운데이션이 크게 유행하였다. 그러나 너무 탁하고 인위적인 느낌을 줌으로써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네츄럴한 화장이 유행하면서 다시 약간의 핑크와 산호색상이 가미된 파운데이션이 유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들어 글로시와 샤이니한 메이크업이 크게 유행됨에 따라 파운데이션에도 펄을 가미한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다.

### 2) 피부타입

#### (1) 피지와 땀

피부 타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피지 분비량과 각질층의 수분 상태로 판단한다. 피지는 피부를 보호하고(자외선, 항산화), 수분 증발을 억제 시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과도한 피지와 땀은 화장의 지속성을 떨어뜨리고 화장을 흐트러뜨리는 저해인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만들 때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위해 피지와 땀의 흡수력이 높은 성분들을 사용하게 된다. 특히 여름을 겨냥한 파운데이션과 지복합성 피부용이나 틴에이저 제품에는 필수인자가 된다. 하지만 반대로 건조한 계절과 건성, 민감성용 화장품과 중년여성을 타겟으로 한 제품에는 오히려 피지와 땀 성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성분을 사용해야 한다.

## (2) 피부 생리와 구조

자외선, 온도, 습도변화 등의 환경적인 요인과 노화에 의한 신진대사의 저하, 호르몬 등의 피부생리적인 요인, 스트레스, 신경성에 의한 심리적 요인에 따른 피부 생리학적으로 나타나는 피부의 구조변화들은 여러 가지 피부표면의 결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피부표면의 결점은 파운데이션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화피부와 과색소 침착(기미, 주근깨, 반점), 여드름, 민감성 피부들이 이러한 현상으로서 이러한 피부결점을 보정시켜주고 커버해 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의 기능이 요구 되어지고, 또한 최근에는 스킨케어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기본적으로 보습제와, 자외선 흡수제, 산란제, 항산화제(비타민 E, C, 베타카로틴등)이 함유되어 있고, 노화방지제와 색소침착을 개선시켜주는 환원제나 티로시나아제 억제제등이 함유되어있는 제품과 민감용( 방부제와 색소등 자극 성분들을 자극이 비교적 적고 보습성을 강화시킨) 등 고기능성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기능성 화장품의 흉내만을 내고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연령

나이가 들면서 피부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수분 보유력도 떨어지면서 피부 표면 형태도 방사선형 무늬를 잃어버려 선명하지 않게 된다. 피부색 역시 황색을 띠는 칙칙한 피부 상태가 된다.

물론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피지 분비량이 많고, 여드름 등으로 인해 피부의 화장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도 있다. 나이에 따라서 파운데이션의 종류와 색상을 적당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환경인자

파운데이션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외적인 인자의 하나인 환경적인 요인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절에 따른 온도와 습도 차이가 크고, 점점 공해로 인한 유해산소와 더욱더 유해해진 자외선으로 인한 과산화 지질에 따른 노화문제가 대두되면서 여름용 파운데이션과 겨울철 보습성을 높인 파운데이션이 상품화되고 있다. 따라서 계절과 지역에 따른 파운데이션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다루었듯이 그런 환경적인 부분때문에 스킨케어 개념의 기능성 파운데이션들이 출시되고 있다.

### 3. 파운데이션의 원료와 기술

파운데이션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들은 기술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런 욕구에 충족할 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한 첨단기술은 바이오 기술, 나노기술, 신소재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최근 분체의 표면기술과 분산기술의 향상에 따라서 파운데이션의 사용감, 감촉, 화장 효과와 마무리감등의 여러가지 기능을 향상시킬수 있게 되었다.

#### 1) 파운데이션의 색상과 아름다운 화장 피부색

피부색에 따라 적당한 파운데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굴에도 색상의 부위차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마는 검고, 목 아래는 붉고 뺨은 일반적으로 흰 것으로 나타난다. 부위에 따른 색차를 모발형태, 얼굴형태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 개성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한다. 아름다운 피부 화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부색보다도 명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색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투웨이케익의 색상은 산화철(노랑, 검정, 빨강)류와 무기안료 등을 이용해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법혼색의 큰 단점은 혼합 색이 원래의 색보다 명도가 낮아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의 유분이나 땀 등에 의해 색소가 젖게 되면 안료가 빛에 의한 굴절률의 차이로 인해 명도가 더 떨어져 칙칙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한국여성의 피부색에 가장 적합한 색상 개발과 첨단 분체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관색과 실제로 도포했을 때의 색상은 다르게 되는데, 그것은 도포색상이 피부 본래의 색상과 파운데이션이 혼합된 색상임으로 색상을 선택할 때 잘 고려해야 하며 파운데이션이 갖고 있는 커버효과와 도포방법, 도포량도 고려해야 한다.

## 2) 커버력

파운데이션의 커버효과는 일반적으로 굴절률이 높은 이산화티탄과 산화철 배합량과 피부 전연성, 부착성에 따라 결정된다. 적당한 커버력이 있는 파운데이션을 선택하고 오히려 너무 커버력이 높을 경우에는 피부색상의 차이를 없애 입체감을 죽이고 표정 없는 화장이 되게 한다.

최근에는 신소재 고기능성 분체의 개발이 활발해 지면서 입자의 크기와 코팅기술이 발달되면서 커버력과 부착력이 우수하면서도 은폐력이 적어서 자연스러운 피부 화장이 되도록 하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 3) 부착력과 화장 지속력

부착력과 화장 지속력은 현대 여성들, 특히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다. 그래서 발수성과 발유성이 우수한 파우더의 배합으로 땀이나 피지에 의한 화장 흐트러짐을 방지해주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 4) 화장의 마무리감

화장을 하고 난 후의 자연스럽고 투명감 있는 피부색을 연출하는 것은 최근들어 네츄럴하고 투명한 화장을 원하는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이다. 청색안료와 이산화티탄의 조합으로 피부의 결점을 은폐하고 투명한 피부를 연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5) 자외선 방어 효과와 그밖의 기능적 효과

자외선 방어 효과는 이제는 당연시 되었고, 그밖의 기능적 측면도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습제로서 스쿠알란과 올리고당이 첨가된 파운데이션, 항산화제로서 비타민 C,E, 피부각질층의 지질 보호막 성분 등 이러한 성분들이 최근에 파운데이션에 많이 첨가되고 있다.

# Ⅲ. 설문조사

파운데이션은 화장품의 종류 중 관심도가 높은 화장품이며 또한 가장 불만도가 높은 화장품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그렇다면 파운데이션의 비중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추론해본 결과는 1)활동여성

인구의 증가, 2)사용 연령층의 확대, 3)자외선 방지에 대한 인식 증가, 4)간편하고 빠른 화장법에 대한 수요, 5)기능적 제품의 수요 6) 스포츠, 레저인구의 증가 7) 스킨케어 지향의 정착화등을 들 수 있다.

###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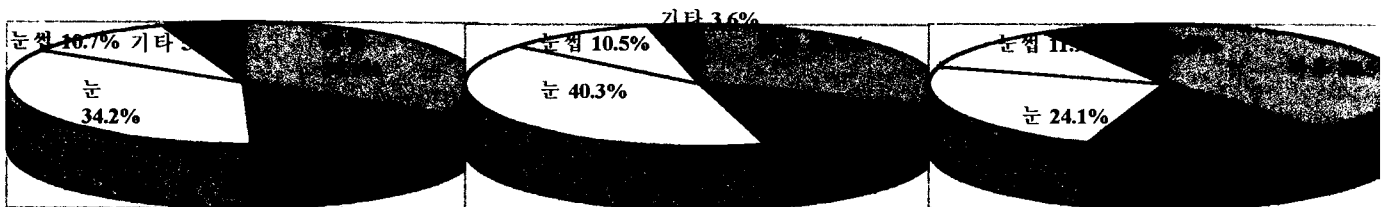
본 조사는 여성들이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화장품의 관련태도와 구매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파운데이션이 차지하는 비중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파운데이션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내용은 응답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보고 화장품 구매 행태와 파운데이션 구매 행태를 조사하였고 조사대상은 18 세~25 세 여성(45%,120 명), 26 세~35 세 여성(32%,96 명) , 36 세~45 세 여성(28%,84 명) 을 나누어서 최종 300 명을 표본크기로 하였고, 조사지역은 서울의 종로, 명동, 강남과 36~45 세 여성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주거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실시기간은 2001 년 6 월 23 일~7 월 18 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였다.

### 2. 색조 화장시 가장 신경써서 하는 부분

색조화장을 하면서 가장 신경쓰는 부위로는 전체적으로 눈과 피부(파운데이션)가 각각 34%대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입술이 15.4% 눈썹 10.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라이프 스타일 유형별로는 다소

그림 2



전체(18세~45세)

신세대(18세~25세)

일반집단(26세~45세)

차이를 보여 눈을 가장 신경 써서 한다는 응답자는 일반집단(24.1%) 보다 신세대 집단(40.3%) 에서 훨씬 높았고, 피부 응답률은 일반집단(38.5%)에서 신세대 집단(31.4%)

보다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보아 26 세 이후부터는 피부 화장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색조화장을 하는 이유로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개성 있는 나의 연출을 위하여 , 결점을 커버하기 위해 ,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등이 많이 언급되었다. 색조화장을 하는 이유를 라이프 유형별로 알아본 결과 신세대 집단에서는 개성있는 자신을 연출하기 위한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일반집단에서는 결점 커버가 색조화장을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표 1.

	신세대 집단		일반집단	
1 위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35.0%	결점을 커버하기 위해	30.7%
2 위	개성 있는 나를 연출하기 위해	31.5%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29.7%
3 위	화장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서	27.9%	화장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서	24.6%
4 위	결점을 커버하기 위해	26.6%	기분전환을 위해	23.3%
5 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25.8%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20.7%

2) 색조화장 구입시 중요한 고려 조건으로는 제품 색상과 사용감이 높게 나타났고, 신세대 집단은 저자극, 상표/제조회사를, 일반집단은 저자극, 자외선 차단 효과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신세대 집단		일반집단	
1 위	제품 색상	54.2%	사용감	47.6%
2 위	사용감	15.4%	제품색상	21.8%
3 위	저자극	11.3%	저자극	15.0%
4 위	상표/제조회사	5.8%	자외선, 기능성	6.3%
5 위	기타( 향,용기,광고)	13.3%	기타(상표,용량, 향)	9.3%

### 3. 파운데이션 구입시 고려 요인

파운데이션을 구입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연령층이 좀더 세분화된 반응을 보였다.

18 세~25 세 연령층에서는 메이크업시 들뜨지 않은 것을 중요시 여겼고, 26 세~ 35 세



여성은 화장의 지속력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있었으며, 36 세~ 45 세 여성은 피부에 잘 퍼지고 곱게 발라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제시된 11 가지의 항목 중에서 공통적으로는 피부에 잘 퍼지고 곱게 발라짐과 화장의 지속력 두가지 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들뜨지 않음과 커버력, 가격, 색상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분석해본결과 피지 분비가 많은 신세대의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사용시 화장 들뜸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되고, 노화가 진행되며 피지분비가 적어지는 장년층 여성은 가장 사회활동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일을 하면서 화장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노화기에 접어든 중년여성의 경우에는 피지 분비도 적고, 노화와 기타 혈액순환 저하로 오는 문제로 인한 화장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므로 파운데이션 사용시 그러한점을 문제점으로 생각한다.

표 3

문항	구입시 고려 요인	신세대	장년층	중년층
1.	피부에 잘 퍼지고 곱게 발라지는가	<b>8.3%</b>	<b>17.3%</b>	<b>43.7%</b>
2.	메이크업 후 들뜨지 않는가	<b>44.5%</b>	4.8%	8.0%
3.	순하고 자극이 없는가	2.4%	1.7%	<b>11.4%</b>
4.	커버력이 우수한가	1.2%	<b>24.3%</b>	<b>16.2%</b>
5	믿을 수 있는 상표 /제조 회사인가	3.6%	0.9%	4.4%
6	화장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b>25.5%</b>	<b>40.3%</b>	9.0%
7	제품의 가격이 적당한가	6.2%	4.7%	1.8%
8	파운데이션의 색상이 피부색과 어울리는가	4.5%	5.2%	2.3%
9	제품의 향이 마음에 드는가	0.9%	0.4%	1.8%
10	용기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가	2.7%	0.2%	0.2%
11	판매원의 권유	0.2%	0.2%	1.2%

#### 4. 일본 자생당 설문 조사

마지막으로 일본 자생당 설문 조사에서 파운데이션 시장에 있어서 자외선 방지 효과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파운데이션 시장에 있어서 자외선 방지 효과는 이제는 보통으로 되어있고 소위 여름 파운데이션이 아니라도 파운데이션 일반에 구해지는 기본 성능의 하나로 되어있다.

자생당의 조사에 의하면 약 8 할 이상의 사람이 파운데이션에 자외선 방지효과를 중시한다고 답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상품명에 “붙어있는 UV”표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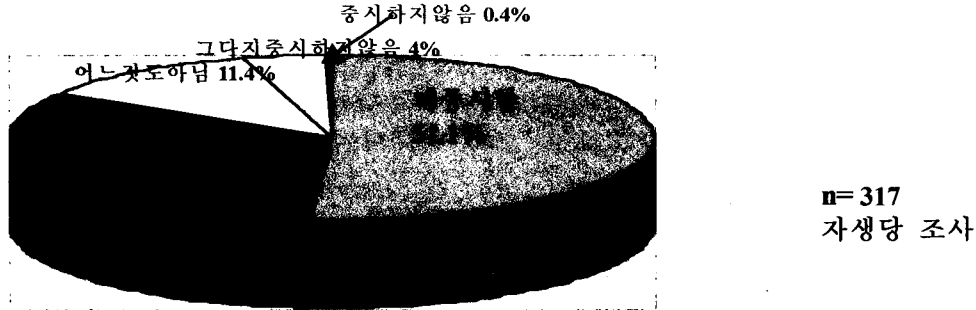


그림 3. 파운데이션의 자외선 방지 효과에 대한 중요도

파운데이션의 기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V 표시는 변하여 화운데이션이 갖는 기능을 왜소화해 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UV 대응은 통상의 생활 범위에 있어서 자외선 정도라면 그 방지 효과는 기본이고 특별히 내세워 크게 외칠 것 까지도 없다고 하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생각외로 소비자의 파운데이션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

조사결과로 보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불만에서 파운데이션의 불만도가 가장 컸다.

그 이유를 보면 ‘마무리’가 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색상’이 23%, ‘사용감촉’ 19%, ‘화장 지워짐’ 16%로 되어있고, 의외로 화장효과나 사용감의 기본적인 요인에 불만이 집중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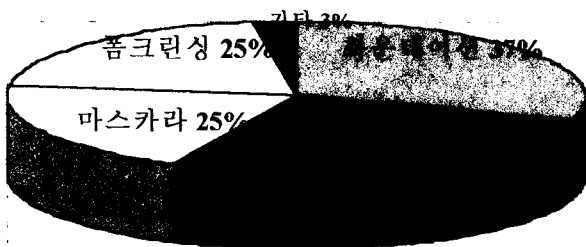


그림 4.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의 불만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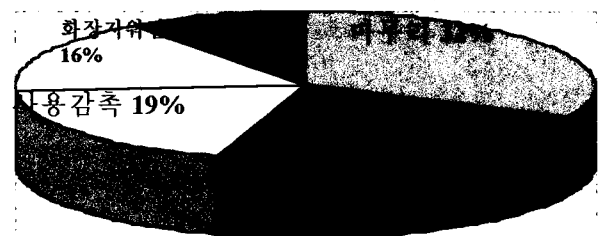


그림 5. 파운데이션의 불만 이유

## VI. 결론

이제까지 파운데이션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운데이션이 차지하는 비중과 여성들이 파운데이션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앞서 설문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파운데이션 기능에 있어서 자외선 차단 효과는 당연하고 한발 더 나아가 투명감 있는 화장, 피지로 인한 번들거림 방지, 화장의 흐트러짐이나 들뜸 방지 등을 파운데이션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최근에 다공성 구상분말 및 고기능 복합분체, 초미립자분체와 자외선 A,B 흡수제, 판상이산화티탄 등이 활발히 연구개발 되어짐에 따라 파운데이션도 이것과 맞추어 제품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이제는 화장품도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연령, 취미, 유행 계절, 환경에 따른 세분화된 화장품을 출시하여야 하며 소수의 구매 고객을 위한 제품들도 앞으로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파운데이션은 고기능성과 스킨케어개념이 가미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 [ 참고문헌 ]

1.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1987.
2. 김주덕 외, 신 화장품학, 東和技術, 1997.
3. 장덕재, 최신 化粧品學, 장업신보, 1998.
4. Polo, K.F.D., A short textbook of cosmetology.
5. Grham, J.A., Kligman, A.M. & Appl, J., Cosmetol 2, 1984, pp.7~18.
6. Abe. T., Chem.Pharm Bull 27, 1994, p.386.
7. Talbot, J.R., Macgregar, J.K. & Crowe,F.W., Investigative Dermatal 17, 1997, p3.
8. Tajkowski, E.G. & Reilly, T.H., Proc.sci,sect,Toilet.Goods, Assoc.No.20, 1999.
9. J.Soc, Cosmet.chem.29, pp.497~521.
10. Farber, E. & Lobitz, W., Annu, Rev, Physiol 14, 1952 p.519,
11. Yoichiro TANAKA, Fragrance Journal 5, 1993, pp.14-26.
12. Asao HARASHIMA, Fragrance Journal 5, 1993, pp.47-67.

## **ABSTRACT**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 going on for developing a new blend of cosmetic ingredients. such as Porous sphere power, High functional composition power, Ultrafine power, UV sunscreen agent, Flat titanium dioxide etc.

It's said that these ingredients will have multi functional effects on foundation users.Regarding foundation products. UV care effect is basic and consumers want special feelings for skin and its' transparency. People also look for a high performance foundation which helps skin stay shineless and flawless with a longlasting beautiful finish.

A lot of cosmetics are produced in small quantities resulting in a greater variety depending on consumers' ages,hobbies, trends, season and environment, so more specific cosmetics should be developed.

To satisfy more specific clientele, It is expected that special care product will come out.Foundations for the elderly and men are already being considered as well as ones for trans-genders are possibility.

It's considered that foundation is not a makeup but something in skin-care categories based on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high performonce foundations.